

일 여대신입생이 인지하는 부모 양육행동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

윤희상* ·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

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associated with family support of college freshman

Hee Sang Yoon* · Gyung-Hee Kim*
Seoul Woman's College of Nursing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parent behavioral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family support of college fresh-woman, in part to find the way of successful college life.

Method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256 freshman enrolled in college, between 2weeks may and June 2009. The questionnaire items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d religion, college entry form(high school graduation/other college experieence), allowance, college life satisfaction, self rated health and family support,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behavior consists of affection, reasonable explanation, abuse, excessive interference, supervision, negligence, inconsistencies. The dependent variable is perceived family support, independent variable mother and father behaviors that consisted of above 8 spheres.

Result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t-test was used for the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fluence elicited by the instrument of parenting behavior was determined using multiple regression under the control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fluencing factors are mothers's affection and father's supervision, neglection and affection.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is important father's behavior to their children especially they are regarded as father's neglect is not support them. We suggest that, for father's behavior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perceive their family support.

Key words: family support, Parenting Behavior

접 수 일 : 2011년 6월 20일, 수 정 일: 2011년 8월 10일, 채 택 일: 2011년 9월 20일
† 교신저자 : 윤희상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89 서울여자간호대학)
Tel: 02)2287-1743, Fax: 02)395-8018, E-mail: viva826@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온 청소년으로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와 집에서 강요하는 학습만을 반복하다가 대학 입학 후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몰라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다.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등록금은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 가족갈등을 겪기도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생활이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고 가족에게도 대학생이 있다는 것은 위기일 수 있다. 여자대학생은 가정적 배려와 지원이 남자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중역할에 따른 갈등과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의 차별로 진로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남성보다 크므로 좌절감을 경험하고 부담감을 받고 있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여대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대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은령과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정서적으로 대처하므로, 정서적인 지지가 중요하고 가족의 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공수자와 이은희, 2006).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 놓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므로 여자대학생에게 가족의 지지는 중요하다(Collins와 Laursen, 2004).

가족의 지지는 관심에서 출발하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하는 정도로 사회적 적응에 중요 변인이다(Grzywacz와 Marks, 2001). 긍정적인 가족지지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며 가족의 가치를 인정한다(Papini와 Roggman, 1992). 가족이 나를 지지하고 있을 때 긍정적인 행동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므로, 신입생에게 가족의 지지가 주

어지면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된다(Grzywacz와 Furqua, 2000). 가족지지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부모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Ciairano 등, 2008).

부모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인성과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허묘연, 2000; 손석한, 2001), 자녀에게 규칙을 제공하고 원하는 행동과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Amato와 Fowler, 2002). 부모양육행동은 격려 칭찬 애정표현 등으로 나타나고 이와같은 행동을 많이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양육적인 반면에 적은 부모는 차갑고 거부적이다. 따듯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문제해동을 최소화 시키고 학업 성취와 사회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Wang 등, 2011).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대, 과잉간섭, 비일관성 등으로 서로의 요구를 거절하고 적대감을 증가시킨다(Collins와 Laursen, 2004).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은 부모 자녀와의 양방향의 다이내믹에 의한 것으로 부모양육 행동의 반응이다(Dishion 등, 2004). 대학생 대상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김지영 등(2004)은 대학생 양육환경과 부모와의 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소선숙 등(2010)은 부모양육행동이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부모양육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학신입생은 준비 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적인 성취, 대인관계 형성, 취업과 같은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가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적응과 관계된다. 이신형 등(2009)의 연구에서 입학초기에 대학신입생의 반수정도가 불안성향을 보이고 우울 유병률이 19%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여 신입생이 경험하는 혼란을 설명해 주고 있다.

가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가족환경

은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 가족의 지지가 주어졌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여학생은 부모양육행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가족지지가 중요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가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여대 신입생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에 부모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신입생이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 부모 양육행동을 파악한다.
-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족지지와 부모 양육행동을 비교한다.
- 셋째, 가족지지와 부모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여자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표집방법은 편의 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는 총 300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4부를 제외하고 256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버지 어머니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애정(6문항), 합리적 설명(5문항), 학대(6문항), 과잉간섭(6문항), 과잉기대(6문항), 감독(4문항), 방치(5문항), 비밀관성(4문항)의 8개의 하부영역으로 구분되어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하위영역별로 .68에서 .86이었다. 소선숙 등(201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86 이었고 하위영역은 감독 .68, 합리적설명 .77, 비밀관성 .81, 과잉기대 .84, 과잉간섭 .79, 학대 .86, 방치 .85 애정 .68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감독 .83, 합리적 설명 .83, 비밀관성 .62, 과잉기대 .81, 과잉간섭 .84, 학대 .86, 방치 .73 애정 .85였으며 전체문항 신뢰도는 .76였다.

요인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 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 남는 결과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

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며,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 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작적 정의는 '애정'은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께안아 주며 의견을 존중해 주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행동이다. '학대'는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때로는 이유없이 상처가 남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간섭'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와주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행동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고가 되라고 강조하고 지적인 성취에 열성적인 태도이다. '방치'는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비일관성'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는 것이나 기분 내키는대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이다.

2) 가족지지(Family support)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간으로 UNDP project에서 수정, 보완 제작한 것으로, 양순승(1999)의 연구에도 사용되었다.

가족지지 척도는 긍정문항 12개, 부정문항 13개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가능 하도록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가족지지만 대학신입생이 인지한 가족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제 해결 관련된 정보, 필요한 돈, 물건,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 모두 포함된다. 박지원(1985)이 척도 개발 당시 신뢰도는 .92이었으며 양순승(1999)연구에서 문항분석한 내적일관도는 .92였고, 김은실(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였고 이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자료처리는 SPSS 14.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와 부모양육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 양육태도와 가족지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력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자료의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9~20세가 전체의 64.1%를 차지하였고 최고령은 39세였다. 입학유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한 학생이 77%이고 타 대학 재학경험이 있는 학생이 23%였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54.3%이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45.7%였으며, 용돈에 만족하는 학생이 48.1%였다. 학교생활에는 51.6%가 만족하였고, 건강상태는 60.1%가 건강하다고 답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령	~20세까지	164	64.1
	21~25세	67	26.2
	26세 이상	25	9.8
입학유형	고등학교 졸업	197	77.0
	타대학 재학경험	59	23.0
종교	기독교	88	34.4
	가톨릭	40	15.6
	불교	10	3.9
	기타	1	0.4
	없음	117	45.7
용돈	매우 만족	26	10.2
	만족	97	37.9
	보통	86	33.6
	불만족	42	16.4
	매우 불만족	5	2.0
학교생활	매우 만족	14	5.5
	만족	118	46.1
	보통	93	36.3
	불만족	27	10.5
	매우 불만족	4	1.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27	10.5
	좋음	127	49.6
	보통	78	30.5
	나쁨	23	9.0
	매우 나쁨	1	0.4
합계		256	100.0

2. 부모양육행동과 가족지지

신입생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의 평균은 99.48

점이었고 최대값 123점, 최소값 49점이었다. 아버지 양육태도는 평균 93.64점, 어머니 양육태도는 97.74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가족지지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M±SD	최소값	최대값
가족지지	99.48±16.15	49	123
아버지양육행동	93.64±4.19	64	143
애정	17.61±4.19	6	24
합리적설명	13.54±3.60	5	20
학대	8.24±3.41	6	24
과잉간섭	14.30±4.97	7	28
과잉기대	12.69±7.48	6	24
감독	10.60±3.13	4	16
방치	8.70±3.09	4	17
비일관성	8.13±2.60	4	16
어머니양육행동	97.74±10.92	73	140
애정	18.78±3.96	6	24
합리적설명	14.01±3.50	5	20
학대	8.02±2.82	6	23
과잉간섭	15.41±4.92	7	28
과잉기대	12.59±4.21	6	24
감독	12.93±2.67	4	16
방치	7.63±2.72	5	19
비일관성	8.25±2.37	5	1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비교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종교, 용돈,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종교 유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아버지 양육행동(3점), 어머니 양육행동(2.8점) 높았다. 용돈은 만족한다고 답한 군이 만족하지 않는 군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3.1점 높았다. 건강상태는 만족하는 군이 만족하지 않는 군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4.1점 높았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부모양육행동 비교

		가족지지	아버지양육행동	어머니양육행동
종교	있음	99.80±15.55	92.24±11.31	96.45±11.17
	없음	99.10±16.90	95.26±12.32	99.25±10.47
	t(p)	0.343(0.732)	2.004(0.046)	2.024(0.044)
입학형태	고등학교졸업	99.63±16.22	93.66±12.38	98.25±11.06
	타대학재학경험	98.97±16.06	93.57±9.98	96.07±10.33
	t(p)	0.278(0.781)	0.051(0.960)	1.323(0.187)
용돈	만족함	100.05±16.13	95.26±11.22	99.06±11.02
	만족하지 않음	98.95±16.12	92.14±12.27	96.52±10.72
	t(p)	0.541(0.589)	2.071(0.039)	1.832(0.068)
학교생활	만족함	98.44±16.57	93.016±12.06	97.29±11.57
	만족하지 않음	100.59±15.69	94.33±11.66	98.24±10.19
	t(p)	1.064(0.288)	0.870(0.385)	0.677(0.499)
건강상태	만족함	98.53±16.19	95.27±12.68	98.80±11.84
	만족하지 않음	100.91±16.07	91.13±10.04	96.14±9.17
	t(p)	1.155(0.249)	2.710(0.007)	1.880(0.061)

4. 부모양육행동과 가족지지와의 상관관계

가족지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대, 과잉간섭, 방치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4>.

<표 4> 가족지지와 부모양육행동 상관관계

		아 버 지						
	애정	합리적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일관성
가족지지	.695**	.617**	-.356**	-.163**	-.049	.375**	-.658**	-.398**
		어 머 니						
	애정	합리적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일관성
가족지지	.673**	.556**	-.350**	-.252**	-.069	.375**	-.629**	-.321**

5. 부모양육행동이 가족 지지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어머니 애정, 아버지 방치, 감독, 애정의 변수였다.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애정(standard $\beta = 0.298$)이 많을수록 가족지지가 높다고 인지하였으며, 아버지의 방치(standard $\beta = -0.194$)가 낮을수록, 감독(standard $\beta = 0.137$)과 애정(standard $\beta = 0.136$)이 많을수록 가족이

지지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에서 VIF 값이 4.181에서 1.067사이에 존재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Durbin Watson 값이 2.048로 자가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70.4%였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표 5> 부모양육행동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

	β	S. β	t	p	VIF
종교	-1.178	-0.036	0.946	0.345	1.122
입학유형	-0.842	-0.022	0.584	0.560	1.072
학교생활만족	-1.509	-0.047	1.224	0.222	1.102
용돈만족	0.501	0.015	0.413	0.680	1.067
건강상태	1.569	0.047	1.211	0.227	1.168
애정(아버지)	0.526	0.136	2.047	0.042	3.372
감독(아버지)	0.710	0.137	2.489	0.014	2.320
합리적 설명(아버지)	0.536	0.120	1.807	0.072	3.362
학대(아버지)	-0.240	-0.051	0.983	0.327	2.019
과잉간섭(아버지)	-0.203	-0.062	1.077	0.283	2.562
방치(아버지)	-1.026	-0.194	2.616	0.010	4.181
비일관성(아버지)	-0.440	-0.070	1.363	0.174	2.028
애정(어머니)	1.214	0.298	4.193	0.000	3.863
합리적 설명(어머니)	0.288	0.063	0.963	0.337	3.273
학대(어머니)	-0.085	-0.015	0.288	0.210	3.696
과잉간섭(어머니)	-0.103	-0.031	0.555	0.579	2.347
감독(어머니)	-0.190	-0.031	0.587	0.558	2.176
방치(어머니)	-0.518	-0.087	1.258	0.210	3.386
비일관성(어머니)	0.348	0.051	1.044	0.298	1.824
..... $r^2=0.704$ $F=28.268$ $p=0.000$ Dur bin-Watson=2.045					

IV. 논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반적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전인격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의 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일방적인 아닌 상호작용적이다. 양육행동은 크게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으로 구분되며 차원론적 접근은 서로 다른 양육행동의 측면들을 측정 분석하여 주요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계되는지를 보는 것으로(유영달과 이은지, 2010) 이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은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양육행동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청소년 집단을 측정한 옥정 등(2001)의 연구와 평균값을 비교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의 점수는 높았으며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치의 점수는 낮았고, 비일관성의 점수는 동일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애정 과잉간섭 감독 비일관성의 점수는 높았으며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방치의 점수는 낮았고 학대의 점수는 동일하는 등,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지지 점수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김은실(2005)의 연구보다 높았으며 정상청소년의 가족지지가 높다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박영애와 황옥경, 1997).

일반적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부모 양육행동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혜련과 최윤정(2003)의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추후 종교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가족이 지지하고 있다고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어머니 양육행동 중 애정, 아버지 양육행동에서는 방치 감독 애정의 순이었다. 어머니가 애정적 태도로 대하고, 아

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적당히 감독을 하면 지지하고 있다고 느꼈고, 아버지가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는 못하였을 때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전통적인 자녀교육과 일치하였고(김효순, 2010),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받는다는 방희정(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소선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반대 개념인 학대가 자녀의 우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부모의 애정적 지지는 자녀 행동과 선형관계가 있어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문제 행동이 적고 사회 적응이 빠르고, 부모의 따듯한 애정적 태도가 부족하였을 때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과 가족생활이 줄어들므로(Wang 등, 2011),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의 중요 시사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가족이 지지한다고 인지하는데 어머니보다 더 많은 하위영역에서 미치는 변수가 많으므로 여대생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영달과 이은지(2010)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더 많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소선숙 등(201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치하고, 옥정 등(200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 비행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방임이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소선숙 등(2010)은 아버지의 방임이 자신에게 무가치감을 갖게 하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기상을 갖게 하여 청소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하여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애정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수였다. 이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옥정(2001)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부모 모두에게서 낮은 애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온정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이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유영달과 이은지(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 애정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유사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감독은 인지하는 가족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김혜련과 최윤정(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감독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발달에 영향을 주고 성인이 되어 행동적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임상적인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적었다(임화운, 2005). 어머니의 애정이 적었던 집단은 적대감 편집증과 같은 정신병리를 나타내고 있었다(오동재 등, 1993). 김지영 등(2004)의 대학생 편집성향연구에서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방치와 관련된다고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대신입생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버지는 애정과 감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방치한다는 느낌이 적을 때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므로, 이 연구에서 나온 요인을 기초로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가족지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여대신입생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에 관여하는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영역 중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 여대에 입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총 256부가 분석되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유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한 학생이 77%이고 타 대학 재학경험이 있는 학생이 23%였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54.3%이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45.7%였으며, 용돈에 만족하는 학생이 48.1%, 학교생활에 만족은 51.6%, 건강상태는 60.1%가 건강하다고 답하였다. 신입생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의 평균은 99.48점이었고 최대값 123점, 최소값 49점이었다. 아버지 양육행동은 평균 93.64점, 어머니 양육행동은 97.74점으로 나타났다.
2. 가족지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분석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대, 과잉간섭, 방치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애정, 아버지의 방치, 애정, 감독이 가족지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4. 가족의 지지는 힘과 권위를 대칭적으로 맞추며 가족으로부터 청소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되는데 필수적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부모의 통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모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노출하므로 여대생에게는 부모의 양육행동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따듯한 애정과 적절한 감독 그리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주어지면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용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 표집에 의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족지지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매개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공수자, 이은희.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6;11(1):21-40.
- 김은실. 정신장애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지영, 신민섭, 권석만.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 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4;23(4): 919-935.
- 김효순. 새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010;30:245-268.
- 김혜련, 최윤정.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 : 부모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003;16:37-63.
- 박영애, 황옥경.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지지와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7;15(1):225-237.
- 박지원.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 방희정.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2000;6(3):41-65.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17(3):1-23.
- 손석한 외 5명.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40(4): 605-614.
- 손은령, 김계현.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료장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2;14(1):121-139.
- 양순승. 방문간호 및 주간관리 프로그램이 재가 만성정신질환자의 가족 부담감과 가족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3;32:896-903.
- 유영달, 이은지.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0;12(4):91-115.
- 이신형 외 5명. 일개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 활적응에 대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의 영향. 가정의학회지 2009;30(10):796-804.
- 이진숙, 정혜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4;23(3):47-61.
- 이훈진.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

- 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4;23(2):381-395.
18. 임화윤. 만성정신질환자의 애착유형 및 부모양육행동과 자기개념의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19. 허묘연. 청소년이 자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20. Amato P, Fowler F.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02; 64:703-716.
21. Ciairano S, Kliwer W, Nonino S, Bosma H. Parenting and adolescent well-being in two European countries. *Adolescence* 2008;43:99-117.
22. Collins W, Laursen B. Parenting-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Hoboken, NJ: Wiley, 2004;145-176.
23. Dishion T, Nelson S, Bullock B. Parenting adolescent autonomy: Parental disengagement and deviant peer process in the amplification of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27:515-530.
24. Grzywacz JG, Fuqua MS. The Social Ecology of Health Leverage Points and Linkages. *Behavioral Medicine* 2000;26(3): 101-115.
25. Grzywacz JG, Marks N. Social Inequalities and Exercise during Adulthood: Toward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01;42:202-220.
26. Papini D, Roggman L.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92;12:420-440.
27. Wang M, Atormshak T, Willett J. Trajectories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 and Early Adolescent Behavioral Outcomes. *Development Psychology* 2010;47(5): 1324-1341.